詩人蘆溪와그의藝術 (三)

─朝鮮文學의一研究─

李殷相

五、蘆溪의略傳(一)

그러면 먼저蘆溪라는사람이 어떠한사람인가를알아야하겟기에 그의傳記를左記諸文에依據하야紹介하고저한다

當時巡使李溟의『巡相請褒啓狀』
當時郡守沈之源의『郡守報營狀』
芝山曺好益의『挽詞』
佐郎李德友의『道溪祠宇上樑文』
縣監李復仁의『奉安文』
當時의『撫備謄錄』
驪江李昇秉의『墓碣銘』(이것은公의沒後一八七年되는純祖二十九年西紀一八二九年己丑冬至後二日에된것)
鄭葵陽의『朴公行狀』(이것은公의沒後一四二年되는肅宗三十年 西紀一七○四年甲申에된것)
其他鄭夏源의『整碣殿安文』等數種

× ×

公의諱는仁老요 字는德翁이요 號는無何또는蘆溪이다

그의祖父는 號를知足堂이라한允淸이요 父는碩이요 母는朱氏(朱舜臣의女)로서 公은明宗十六年(西紀一五六一年)辛酉六月二十一日에 永陽道川里에서낫다

녯사람의傳記에 흔히『有異』에多異徵하더니 及生에明達如神하며 不教字而自能通解하고 人謂書史에 一聽輒記하더라』는것이 쓰이어잇거니와 이蘆溪의幼時도 그러케聰慧하더라고傳한다

일즉十三에『戰勝吟』이란詩를지엇스니 그것은이러하다

午睡頻驚戰勝吟
如何催促野人心
啼彼洛陽華屋角
令人知有勸耕禽
(右蘆譯하면)

버국이 울음소리에
낫잠자로 깨이나다
들사람 마음만을
어이이리 재촉나니
서울 조흔집의
커마에도 안자울어
밧같이 권하는새가
잇슴을 알리어라

이러한것을보면 自幼로 詩才가잇섯든것을 짐작하겟다 壬辰亂을當하니 公은慷慨하여投筆하고 戎馬間에出入하엿다 그러나 公은徒手無兵이엇고 또功을나타내어 賞을엇고저아니함으로 다만 原從末錄에 뭇參列이나 하엿다한다

公의나히三十七歲가되든 宣祖三十一年(西紀一五九八)戊戌에 江左節度使成允文의幕下에잇서 매양賊情을論하매 成允文이 擊節稱善하엿고 그해겨울에釜山에赴防하다가 海賊이遁去함으로 本營으로돌아와 太平詞一篇을지어 士卒을慰勞하니 살피건대 나타난것으로는 이때에가公의歌詞中에 가장처번된것인모양이다

그 翌年己亥에야 登科하여 처음으로 守門將이되엇다가 宣傳官이되엇고 秩滿에다시 助羅浦萬戶가되엇다 이助羅浦는 沿海의 한要害로서 그곳士卒들은 搖納에困難하여堪耐키어렵더니 公이그곳에이르러 盡心撫字하엿다

그러다가 다시그곳을떠나게되매 弊蔽破壞이요 行李또한蕭然한것을보고 士卒들이 떠욱늣겨頌德碑를세웟다한다

그뒤로도 乾蕃禪間에浮沈하엿스나 五十에 즈음하여는遂守를 버리고 田間에 몸을숨기니 이와가티 公의半生一載은 다만한낫赳赳武夫이엇든것(이다)

阿Q正傳 (一)

中國 魯迅 作
白華 譯

○ 이『阿Q正傳』은 中國現代의 第一流作家魯迅(周樹人)氏의 作이니 中國文藝復興期의代表作으로 歐米에 喧傳되어 이미 數個國語로 飜譯된것이다 取材는 革命에 犧牲된 無智한 한農民의 全生涯에 잇스니 第一革命當時의 社會狀態를 魯迅氏一流의辛辣한諷刺와 透徹한觀察로 如實하게 表現한것이다 이러한犧牲者는 中國의國情으로 現代의訓政時期에도 반드시만히 잇스리라고 생각하는바 本小說의主人公이 自然人인곳에 本篇의妙味가잇다 譯者는 이를벌서부터紹介하라고 생각은하얏섯스나 文中에 難解의土語가 만히석기어 躊躇를 마지아니하다가 이번에 偶然한機會로 譯述하게된것이다

第一章 序

나는 阿Q를爲하야 正傳을지으라고하기는벌서 한두해만이 아니엇다 그러나 지으라고하면서 또 도리켜 생각하얏다 이것으로 보드래도 나는『立言』의사람이 아님을알수잇다 從來로不朽의 붓은不朽의사람을 傳하는것이니 그래서사람은 글에依하야 傳하게되고 글은사람에依하야 傳하게된다 말하면아모개는아모개에依하야 傳하게되는것인外닭에 漸漸나종에는 알수가업게되는일이만타 그래서阿Q를傳하게되자 思想우에무슨魔가든것이잇서 結末이위롱퉁 뒤롱퉁하야진다

그것은 그러타하고 이한篇의 速히써어업서질文章을짓기爲하야 나는붓을들지마자 여러가지의困難을當場에늣기엇다 첫재는文章의名目이엇다 孔子님께서는『名不正則言不順』(이름이발으지아니하면 말이順치안타)이라하셧다 이는원악이極히注意할것이니 傳記의이름은 甚히만하 列傳, 自傳, 內傳, 外傳, 別傳, 家傳, 小傳이니하지마는 뗙한일은모도가맛지아니한다

列傳이라하면어떤가 이一篇은 여러偉人과함께正史속에排列한것은決코아니다 自傳이라하면 어떻가 나는또決코阿Q그사람이 아니다 外傳이라하면 內傳이엇고 또內傳이라하면 阿Q는決코神仙이아니다 그러면別傳이라고하면 어떻가 阿Q는大總統의上諭로 國史館에宣付하야 本傳을 세운일이 아즉한번도 업다 ─英國의正史에도博徒列傳하라는것은決코 업지마는 文豪『디컨스』는 博徒列傳이라는冊을내엿다 그러나이는 文豪나할일이요 우리따위의할일은못된다 이밧게 家傳이라는 것도잇지마는 나는阿Q와同宗인지 아닌지도아지못하고 그의子孫에게 請바든일도업다 小傳이라하면 或조흘는지모르나 阿Q는또달오히大傳이라는것이업다 及其也에이를말하자면 이一篇은『本傳』이라고할것이지마는 나의文章의 蓄想으로부터 말을하면 文體가淺近하야『수레돌 쓸고漿을 팔라다니는사람들』의 노다어리는말을 쓴外닭에 그러한僭稱은 쓸수가업다 그래서三敎九流의數에도 들지안흔小說家의所謂『閑話休題 言歸正傳』이라는 恒茶飯말中에서『正傳』이라는 두글字를 떼여서名目을삼앗다 卽古人의 지은『書法正傳』의 正傳과 글字로보면 매오混同되는듯하지마는 다시는 어쩔수업다

둘재는 傳記를쓰는데는 通例가첫머리에『아모개字는무엇이요 어느곳사람이라』하는것이普通인데 나는阿Q의姓이무엇인지도모르지아지못한다 한번 그는趙家라고말을한듯한데 그것도 그이튿재되든날에는 우물주물하엿다 그것은趙太爺의 아들이 秀才가되엇슬때의일이다 鑼鑼소리가 燦爛하며 喜報가마을에이르럿슬때에 阿Q는막兩碗의黃酒를 들어마시고 발을굴으고 춤을추면서 말하얏다 이것은자기도 매오생각이난다 그것은趙太爺와는 원래 한집안이요 자세히캐고보면저는秀才보다 손위라고말하얏다 이때겨테서 듯고잇든사람들은 漸漸히엄마음 敬意를表하얏다 뉘데그이튼날 地保가 阿Q를불러 趙太爺의집으로 다리고갓다 趙太爺는 그를한번 보자 얼굴이빨애가지고 소짓는다

『阿Q! 너뭐라구햇느냐 내가너의본집이냐 죽일놈가트니!』

阿Q는잠잣코잇섯다

보앗는가

李雲精

보앗는가?
길녁에잘아나는 간얄핀 풀닙에도
한줌 흙덩이에 애처럽게도피어나는 꼿송이에도
神秘의法則에 속삭입을
宇宙의反映이 아롱거림을
無限한太陽의生命力이 大空을나려쏘는
그러한 씩씩함과 充實함과
끗업는生命의躍動을
그대는 보앗는가?

잉크병 〔賞〕

金閑影

나의冊상우헤
외로히노힌 잉크병
그는 普信 벗十年
다무른 잉경보다는
가벼웁게
沈默을 직힙니다
萬年筆의生命을
틈틈히 니어주는外에
언제든지 小靜을직히는
잉크의瓶은
붓방아찟는 나의마음의
조혼伴侶者가 되어줍니다

─寫眞─
山積한新春文藝作品을考選하는光景

新年懸賞文藝 當選者發表 (一)

『詩』當選者

『코고는소리』 李春憲 (慶南陜川郡草溪邑內)
『내어머님』 李貞求 (元山府銘石洞九一)
『보앗는가』 李雲精 (京城府禮智洞一七九)
『잉크병』 金閑影 (現住所를本社學藝部로通知하시오)

選外佳作 何山生 柳海鵬 李貞求

『童謠』當選者

『스므하롯밤』 尹福鎭 (大邱南山町六八五)
『기다리는긔차』 李旬壽 (住所未詳)
『장가간별님』 韓泰泉 (住所未詳)
『시골』 睦一信 (全南高興郡邑內杏丁里)
『한숨』 李璟魯 (平北寧邊農業學校)

馬의傳說當選者

李太祖의馬祖祭 柳曾韶 (延禧專門學校文科)
『말바위』의傳說 車一路 (金堤郡金溝面金溝里)
大夫禮로말葬事 (無名氏) (氏는現住所를本社學藝部로通知하시오)
『벌떼춘』의죽엄 池熙順 (春川貞明女學校)

〔小說·童話는追後發表함〕

藝術의 大衆化에 對하야 (三)

◇……新年은 이 問題의 解決을 要求

金八峯

이것은 大衆小說의 槪念을 規定하기 爲한 말이엇스나 同時에 一般的으로 우리의 作家의 意識에 對하야서도 適用하야 不可할 것이 업스리라고 생각한다 作家는 勞働者와 農民大衆으로하야곰 世界史의 現段階의 主人公의 任務를 다하도록하는 맑스主義의 意識을 恒常가저야하며 同時에 이러한 意識은 그것이 藝術의 領域內에서 如何한 部門에 屬하는 作品이든지 間에 그 作品에 들어나야할 意識이다 이러한 意識을 가지고서 詩 小說 演劇 映畫 美術 音樂 等의 作品을 製作하여야한다 이럼으로 여긔에 우리의 技術은 必要한바이니 以下 逐條하야 그 方法을 考究하려한다

△

一、詩歌와 小說은 如何히 制作할까? 眞實로 大衆을 붓잡고 그들의 意識을 ××精神에까지 昂揚 結晶케 할려면 從來와 가튼 詩나 小說로써 그 任務를 다할 수 잇슬까? 다시 말하면 林和君의 詩「우리옵바와 火爐」나 雪野君의 小說「過渡期」等이 足히 이 任務를 다할 수 잇슬가?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가튼 作品이 大衆을 붓잡고 또는 그들을 把握하지 못하고 잇는 事實을 본다 왜 그러냐하면 첫재 大衆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둘재 大衆은 그것을 본다해도 알지 못한다 그리하야 첫재는 發表機關과 機會의 問題이오 둘재는 作品의 形式問題로 나타난다 그런데 發表機關과 機會의 問題는 作品 그것이 잇슨 後의 問題임으로 나종에 考究하기로 하고 먼저 作品의 形式問題를 問題로 한다

△

그런데 푸로레타리아 藝術의 大衆化問題에 對하야는 根本的 ……

면 고만 아닌가? (中略) 그러나 大衆中에는 一般的 敎養의 差異(文字 及 其他 常識의 差異)와 特殊的 敎養의 差異(文藝的 趣味와 階級的 意識의 差異)로 말미암아 그 程度에 依하야서 上層과 下層을 스스로 區別할 수 잇스니(中略) 그럼으로 모든 푸로레타리아 小說은 敎養程度의 下層에 屬하는 大衆이 볼 수 잇고 理解할 수 잇고 興味를 무칠만하게 지는다면 敎養程度의 上層에 屬하는 大衆에게 適當치 안타(中略) 그럼으로 푸로레타리아 小說은 大衆의 敎養程度의 層下에 依하야 必然的으로 두개의 方法을 取하게 된다(中略) 그리하야 이 두개의 小說은 하나가 그 왼손이면 하나는 바른손과 가티 同一한 目的과 精神(「아디、프로」— 註) 下에서 密接한 關係를 가질 것이다」 라고

△

그리하야 나는 小說에 잇서서는 그 形式으로 一、文章과 用語를 平易하게 하고 二、朗讀에 便하게 하고 三、華麗하게 하고 四、簡潔하게 하고 五、性格描寫보다는 人物의 處한 境遇를 心理描寫보다도 事件의 起伏을 뚜렷하게 하고 六、客觀的 現實的 俱體的 方法으로써 構成하고 表現하라 하고 ……

△ 그리고 詩歌에 잇서서 ……

一九二九年藝術 論戰의 歸結로서

新年우리進路를 論함 (四)

朴英熙

▽…지금의 朝鮮民族은 民族 ……

▽…哲學觀

▽…商工業

▽…現存한

▽…言語를

▽…그것도

▽…그러나

明日 (3)

韓水岩

入賞 내어머님

△李貞求▽

『내피 내뼈이 내양식』
어머님 어머님은 生前에
당신의 아들압헤서 이렇케
외엇지요

×

오오 어머님
어머님은 永遠히 世上을 떠
낫스면서도
永遠히 世上에 살어잇나이다
『내피 내뼈이 내양식』
이것이 곳 내어머님이 엇나
이다

×

오오 어머님은

우리가 農村에 살엇슬 때
봄마다 두벌 욱벗고
들에나와 씨를 색엿지요
그러고 녀름이 되면
안악네의 모진 땀을 흘리고
호미질을 햇지요

×

그러다 가을이 되면
열발고락에서
피가 터저나오도록
이삭을 주어드렷지요
오오 이것이 곳
피와 땀이 준 糧食이엇나이다

×

오오 나는 어머님이 생각날
때마다
피와 땀을 밧치고
양식을 求하리다
어머님은 조선에 어머님이
엇나이다

謹賀新年

尙州

尙州郡外南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 金曜會

尙州米穀商組合

尙州郡廳 尙州各學校 尙州面所 尙州郵便局 尙州土木派出所 尙州穀物檢查所 尙州各產業團體 職員一同

尙州郡洛東面松村里 趙翼衍

尙州郡外西面愚山 道評議員 鄭東洙

尙州郡外西面愚山 鄭憲默

尙州郡外西面愚山 鄭有默

尙州邑 ナイト自轉車 クロリヤ自轉車 アイリス自轉車 特約店 各種ミシン 販賣並修繕 孫學模 自轉車店

尙州郡外西面職員一同

慶北尙州本町 齒科 朴東厦 電一四番

慶北尙州邑西町濟正醫院 朴正紹 電一八番

慶北尙州邑西町酒類製造場 崔尙善

慶北尙州邑仁鳳里 趙誠覺

慶北尙州邑東門外醫泉醫院 朴熙定 電一一〇番

慶北尙州邑 金基錫 電一〇五番

慶北尙州郡尙州面書谷里 趙誠惇

慶北尙州郡尙州面 合資會社梁村酒類製造場

慶北尙州邑西町 金大鉉

慶北尙州郡青里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功城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咸昌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咸昌面產業組合 金漢翊

尙州郡化東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化西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牟西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內西面事務所 職員一同

聞慶邑內 聞慶醫院 王致德

聞慶郡 官公吏一同

聞慶邑內 李俊媛

聞慶邑內 朴時興

聞慶邑內 李鳳求

聞慶郡店村驛前曲子組合 理事 趙誠直

尙州郡沙伐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沙伐面 張琦鎭

慶北尙州郡功城面 玉山酒製造場

慶北尙州本町 石應穆

慶北尙州邑城東里 朴珍薰

慶北尙州西町 南華理髮館主 劉善烈

慶北尙州邑仁鳳里 面協議員 趙誠昱

尙州邑城東里 黃國源

尙州郡青里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尙州郡外南面書堂里 張宗相

尙州郡外南面昭上里 丁春燮

尙州郡外南面新上里 裵基榮

尙州郡外南面砍亭里 鄭卓愚

尙州郡外南面架殿里 金龍煥

尙州郡洛東金融組合 理事 鄭學基

聞慶郡店村驛前 米穀商 金昌元

聞慶郡戶西南面店村里 李鍾鳳

尙州郡咸昌面酒造場

尙州郡外南面新上里 宋秉五

尙州郡外南面 崔象烈

尙州郡外南面內谷 姜在鉉

尙州郡外南面內谷里 姜洪錫

尙州郡青里 米穀商 金聖化

尙州郡青里市場 泰昌理髮館 林光植

尙州郡青里市場 米穀商 尹大五

尙州郡沙伐面元南里 朴永根

尙州郡外西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尙州郡尙州面草山里 鄭命默

尙州郡青里 酒造場

尙州郡外南面酒造 組合長 全秉龍

尙州郡外南面新上里 朴喜淳

尙州郡功城市場 米穀商 文午三

尙州郡功城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尙州郡功城面玉山洞 金德衡

尙州郡利安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利安面醴川酒造場 金智雄

尙州郡咸昌驛前 醫師 金鶴鎭

尙州郡咸昌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尙州郡咸昌面尺洞 金顯達

尙州郡化東面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尙州郡化寧金融組合 理事 孫泰仁

尙州郡化寧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尙州郡內西面檢岩里 內西酒造場

尙州郡玉山市場 徐廷夏

慶北線玉山驛前 玉山運送部 主任 金元百 石瀅穆

尙州郡功城面山玄里 姜信洪

尙州南町 測量業 石鉦基

尙州邑南町 吉野齒科醫院 電二五番

尙州郡沙伐面 酒造組合

聞慶郡店村酒類販賣組合 申鉉在

聞慶郡戶西南面事務所 職員一同

聞慶郡店村驛前 新興理髮館 趙貫鳳

聞慶郡戶西南面芧田里 鄭輝悳

聞慶邑內 錢翊昶

聞慶 昌善

盈德

金容晚

盈德郡蒼水面仁良洞 金相洛

盈德江口港 酒造合資會社 社長 文明琦

盈德郡寧海城內 有志二六會

慶北盈德郡丑山港 道評議員 金禎漢

盈德郡烏保面烏浦洞 面協議員 金應千

盈德郡廳職員一同

慶北盈德邑 救世醫院 醫師 製藥師 看護婦 一同

盈德警察署

慶北盈德郡長沙市 郭致泳

慶北盈德郡長沙市 鮮紙製造及貿易商 德義洋行 主 崔斗曼

盈德郡 寧海漁業組合 組合長 金斗鎭 理事 申應植

盈德郡南亭酒造株式會社 社長 金斗明 專務 金容燦 取締役 郭致泳 同 李震璧 同 朴光浹 同 李圭邦 監查役 金俊浩 同 尹泰爽 書記 李鳳山

盈德郡南亭面長沙市 紙物貿易商 李衡珍

盈德郡南亭面 面協議員 崔沃鉉 李柄植

盈德郡盈德面 面協議員 崔基五 金源洛

盈德郡南亭面通川洞 白軍達

盈德江口港 市原商店回漕部

盈德郡盈德面小月洞 面協議員 申泰震

盈德郡酒井面 面長 金壽根

盈德江口港 株式會社 盈德運送店

盈德江口港 布木雜貨商 李海錫

盈德江口港漁業組合 理事 片山萬七 外職員一同

盈德江口港 有志 韓圭烈

盈德郡寧海武田支店 金□九

盈德郡寧海市 布木雜貨商 金道先

盈德郡丑山面景汀 劉大烈

盈德郡丑山面景汀 運輸組合員一同

盈德郡丑山面景汀洞 私立景新學院

盈德郡丑山面景汀洞 面協議員 朴禧相

盈德郡丑山漁業組合 組合長 金禎漢 理事 尹永祥 書記 張星烈 同 姜□論 同 姜錫虎

盈德丑山面景汀洞 海產貿易 肥料製造 金亨述

盈德郡寧海市 安在鳳

盈德郡大津港 私立興讓學院

盈德郡大津酒造場 金斗鎭 尹尙說

盈德丑山面上元酒造場 朴敬昌 朴敬元

盈德郡烏保面下渚洞 崔敬淳 鄭仁述 金柄澤 方大和 李鳳凰

盈德郡烏保面下渚洞 面協議員 金珍元

盈德郡烏保漁業組合 組合長 金應千 理事 權寧鐵 書記 吳文燮

盈德郡丑山面景洞 益井漁組

盈德郡蒼水面仁良洞 司法代書 盈德邑南石洞二八五 事務所移轉場所

盈德邑內 紙物貿易商 李衡彥

盈德邑內 新綿布木商 德聚祥

盈德面職員一同

盈德邑內 新綿布木商 林秉燮

盈德多木山林部 主任 土居圖龜衛

慶北盈德邑 眼科內科 公醫 金東喆 一善醫院 分院 江口港

盈德邑野城旅館 主 李基衍

慶北盈德邑 盈德印刷所 主 姜奉允

浦項

盈德邑府石洞 文明商會 主 文明琦

盈德□□組合 理事 福山芳太郎

姜桂弘

盈德邑內 吳宅晃

慶北浦項 合同運輸株式會社 電話 三二二 七六五 〇四六

慶北浦項錦町 海吳病院 吳鍊洙 清河分院 主任 金始東

慶北浦項本町 中谷竹三郎

慶北浦項 面協議員 崔柄基

慶北浦項 金曜會

慶北浦項 金斗河

慶北浦項港 海陸物產委託 泰成號 電話一七一番

慶北浦項 面協議員 崔漢樹

慶北浦項 料理屋組合

慶北浦項港 金東商店

慶北浦項 釀造株式會社

慶北浦項大正町 文化堂印刷所

慶北浦項本町 朴榮熙

慶北浦項本町 洋服及鮮周衣裁縫 迎日洋服店 主 裵璜鉉

慶北浦項大正町 司法代書 朴正玉

慶北浦項仲町 啓文社印刷所

慶北浦項 司法代書

慶北浦項旭町 金銀細工 萬成商店 主 郭守萬

浦項本町 吳服 萬陽商店 主 鄭一萬

慶北浦項 海東洋靴店

慶北浦項 司法代書 朴庚出

慶北浦項 精米業 新興商會 主 申洪斗

慶北浦項本町 大阪屋洗濯所 主 朴相國

慶北浦項 李相勳

慶北浦項本町 金聖元商店

面北大松面槐東洞 面協議員 金世龜

迎日郡大松面槐東日 金永洙

朝鮮日報
昭和五年一月四日 (土曜日)
第三種郵便物認可
第三千二百二十號
謹賀新年
淸州
淸州淸水町 良俊酒釀造場 主 李熙俊
淸州淸水町 衡平社淸州支部
淸州本町二丁目 綢緞布木商 信友商店 主 金泰健
淸州本町二丁目 蘇民醫院 會坪出張所 芙江出張所
朝鮮忠北線淸州驛前 朝鮮陸運株式會社
淸州本町二丁目 淸州郡淸州面事務所
淸州本町三丁目 普濟醫院 醫師 李惠雨
淸州淸水町 綢緞布木洋雜貨商 李萬秀商店
淸州本町 綢緞布木商 金春植商店
淸州本町三丁目 請負業 松江嘉太郞
淸州本町一丁目 御料理 北一樓
淸州本町一丁目 新明醫院 醫師 李明永
淸州郡江西面 美湖酒釀造場 主 李錫永
淸州本町一丁目 綢緞布木商 金喆煥商店
淸州本町一丁目 朝鮮洋服店 主 鄭在汝
淸州本町五丁目 金元根
淸州本町一丁目 崔在玄釀造場
淸州西町 閔泳殷
淸州本町一丁目 湖西洋靴店 主 尹在善
淸州本町二丁目 子午堂時計店 主 李麟永
淸州淸水町 趙富岳
淸州本町三丁目 高見酒造場
淸州西町 川島材木店
梁山
梁山邑市場通 精米搾油 梁山商會
品質本位
今年부터는
새해에들어맞게되엿슴니다
創業第四十一年의今年부터는
사실에잇서서實力의栓을쌤아
科學의一九三〇年에
그良品의大衆化에
驀進코자합니다!
花王石鹼
가오셋겡
本年의標語 花王美는健康美
1930
梁山郡廳
梁山警察署
梁山面事務所
梁山登記所
梁山金融組合
梁山郵便所
梁山小學校
梁山自動車組合
梁山邑市場通 專門入齒 梁山入齒院 主 朴再順
梁山郡邑市場通 東星商店 裵極星
梁山邑市場通 朝鮮料理 高敬伯
梁山邑市場通 東成旅館 金桂順
梁山郡邑市場通 梁山酒造場 主 尹東悅
梁山邑市場通 鄭水澤
梁山邑市場通 梁山印刷所
梁山邑市場通 申東業
梁山邑市場通 朧月商店
梁山郡上北面 林在浩
梁山郡市場通 高松商店
梁山郡上北面 金斗奉
梁山郡上北面 西倉酒造場 崔吉澤
梁山郡上北面石溪里 鄭禹謨
梁山郡上北面 鄭成謨
梁山郡上北面 無名氏
梁山郡上北面 金正玟
梁山郡上北面 鄭舜謨
梁山郡上北面 洪永憙
梁山郡上北面 酒造場 金正元
梁山郡上北面 金三福
梁山郡上北面 朴珉洵
梁山郡下北面 李基八
梁山郡下北面 李永弼
梁山郡下北面 金會京
梁山郡下北面 金九河
梁山郡下北面 金作文
梁山郡下北面 李福萬
梁山郡下北面 李鳳植
梁山邑 朴棋奉
梁山邑 鄭鎭壽
梁山邑內中部洞 嚴杜洪
梁山邑內中部洞 嚴正燮
份川
份川 李京濟
份川 李華洙
份川自動車部 主 金日淵
份川驛前 中華料理 子培芳
份川驛前 金秉五
份川驛前 申寬植
份川驛前 李順華
份川驛前 李周旋
份川驛前 成商會
份川驛前 石萬植
份川驛前 白化淳
份川驛前 白庚濟
大井鶴太郞
份川 吳敬旭
成李 大成 五龍

婦人時論

새로운차림

새해를 마지한 우리는 새로운차림으로 이한해를 지나가야하겟습니다

우리들의 몸동이와 우리들의정신은 나날이변하고 따라서우리들의 생활상태는 날마다변하고 또한변해왓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살림사리는 지금까지 되는대로 지내왓습니다

꾸밀것과 내어버릴것과 업새어버릴것이잇서도 그저 그대로 되어가는대로 지내왓습니다 그리하야 거긔에 모든것이변한다고 그것은 변천이라는것은아닙니다 변하는곳에는 새로운싹이 돗고 새로운열매가 매저야할것입니다

그런고로 그럿케 되지안코변한다는것은 타락이며 퇴보입니다

◇

압흐로 나아가자! 그것은지금에우리가 밟고잇는곳에서 한층더나아가고 지금우리들이 가지고잇는것중에서조치안흔것이면내어버리고 우리들의 지나간날에 올치안흔일은 곳치어나아가자는말입니다

그리하야 나아가는데는 차림을새로히 하고서 나아가자는말입니다

◇

이러는새해입니다 우리도 새로운인간입니다 우리의마음은새로운마음입니다

그러나 새해가와도 그대로그옷때로 잇서서는안됩니다 가정에잇서서의 살림사리나 사회에나아가 하는일이나 그일하는사람의마음이나 태도나 다새로워야할것입니다

묵은헌집을 벗지안는자는 그것은 새생명을가질수업는 자입니다

거긔에는 싹도트지 안흘것이며 꼿도피지 안흘것이오 열매도업슬것입니다

그리하야 어떤 선지자(先知者)는 열매를 맷지못하는 무화과(無花果)나무를보고서 『너는죽어버리라』 저주하엿습니다

그럿습니다 열매를 맷지못하는인간은 사람도아무 쓸데에소용이업습니다

◇

어머니가 자녀를길러도 잘기르고 못기르는데에 그자녀가사람이되고 못되는것입니다 바록그나무가 열매를잘맷는나무라하여도 그나무를 그대로내어버려두면 어느해나 그정도의 열매박게는 열지못하고 어느때는 쪽정이나열릴뿐입니다 이나무는 그때에버혀버려야하고 버혀버린뒤에 그뿌리에서 새싹이나는것을 긔대려야 할것입니다

케아모리 녯날에는 사회를위하야 발분망식한사람이라도 지금에와서 아모런성과가업스면 그것은 열매를 맷지못하는 무화과나무의운명과가튼운명에빠져질것입니다

그리고 주저하여서는 안될것입니다 무슨일이고 주저하는데에는 가능한일도 불가능한일로생각되고말고 압헤보히는 넓은길도 그길을의심하야 다른길로도라가는이에게는 도리어 큰탕패가잇슬것입니다

◇

우리에게는 새해가 왓습니다 어해는우리의힘을기르고 마음을기르고 재조를기르고 단결력을기르고 그리고 형제자매끼운사랑이 자라는 해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이해가 지나간해이나 장차올 래년보다 도더욱중대한해입니다

그러면 이중대한 새해를마지하는우리는 마음으로생각으로나 태도로나 새로운차림이잇서야할것입니다

가정부인

(사진은손초악양)

1930年의朝鮮女性은 장차어써케변할것인가 (三)

그의思想!趣味—娛樂—美容其他

朝鮮講壇社婦人記者 孫初岳孃

견지동 시천교당내에 사무소를두고잇는 조선강단사에 씩씩한기는 바로열두시가 지낸뒤엇습니다 그다지넓지안흔방에 란로를중심으로 여러분선생들이 책상을나란히하고 잇는한편에 그야말로 일천홍으로 씨는무슨공상에잠젓는지 턱에손을고이고 고요히 안저잇섯습니다

『분주하시지요? 년말정리에』 하고긔자는다처오는새해의새희망을 물엇습니다 씨는가벼웁게 웃고

『무어별게잇서야지요 원래이런방면에나섯스니까요 이제부터는 더욱문예방면에 정진하며 녀성운동에 나가보렵니다』 하며녀성다운

얇은목소리

로아모주저업시 새해의새희망을 이야기하는 씨는 그이상더뭇지안허도 벌서새해의마음으로서의새준비는 다되신모양이겟습니다 긔자는우선 이한마듸에 새힘을도두우며

『새해부터 우리신녀성들의의복 혹은 화장에대해서 꼿칠점이 더러업슬까요?』 하고 아조썬화제를 내노핫섯습니다

『별로구체적으로 생각해본적은업습니다만 좀 더색옷을입도록햇스면 좃켓습니다 그리고단발은 아직도 케생각이뒤떠러커 그런자는 모르겟습니다만 그다지보기조치못해요 또소위 모—던껄들은 행동이나차림 차림즉 형식으로만 모—던이되지말고 좀더사상까지

철저한모—던

이되여주엇스면 합니다』 하며 한마듸한마듸 조리잇게 힘잇게말하는 씨에게는 과연철저한무엇이 속깁히감추어잇는듯하여 긔자는쉬승지안코 또다시

『저 영화가튼 것을 조화하시는지요? 그리고대개 어썬것을 조화하섯낫가?』 하고롤엇습니다 씨는생각을 더듬는드시 머리를 살작흔들며

『별로조화할것도업고 실혀할것도업습니다만 대개영화를보는이는 누구나 강한속크를 요구하게됩니다 그런데 강한속크를 주는영화면 제일먼저 련애를그린것입니다만 거는그러한것보다도 일반으로좀더 사회성을썬것을 그려주엇스면합니다』 라는 이한말로도 씨의날카로운관찰은 짐작할수잇섯습니다

『어떤남성이 조흔가구요?』 미소를씌우고 『글세요 대개조흔옷을넙고 입부게움엿다고 다조흘것도아니고

해어진모자

에무릅싸진바지를 입엇다고 다낫불것은업겟지만 너무맨실맨실 하게움람으로 특수한 우리조선사람인것은 보기조치안허요 그리고아모래도 남성과 녀성이다른니만큼 남성은좀활발한편이조화요』 하며 주의깁흔어조로 착은하게 흘러나오는 씨의이야기는 또다시 다른화제를 기다리고게시는듯 십헛슴으로 긔자는 또한마듸 내노핫습니다

『자유결혼은요?』 『너무자유만주어도 젊은사람들로 실패하기쉬우니까 다소 어른들의 간섭이 필요하겟지요』 하고맘것웃으렷습니다

일반사회에대하여 어쩌여주가 업습니까? 하고뭇는긔자의마지막말에 『벗… 늘생각하고잇는바는

남녀교육에

잇서좀더 가튼교육 제도를 실시하여달라는것입니다 말하자면 녀자의교육정도를 남자의교육 정도와가티맨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티맨들을어데면 우선우리녀성들도 직업을구하는데 잇서서나 혹은법률상으로나 남자와가티될수 잇겟다는것입니다 즉동등의 자격을가질수잇슬것입니다』 하며 힘잇게말하는 씨의 해맑은얼굴엔 은면중에 그의뚜렷한 성격을 말하고잇섯습니다 긔자는 희망만흔 이새해에 씨에게 만흔수확이 잇기를 속깁히바랏습니다

劇壇의曉星 (三)

女高生이舞臺에 『밤프가適役』이란申銀鳳

오라버니와함께극계를위하야극계에 장래에배우자로는글쓰는문사라한다

朝鮮硏劇舍 『스타—』篇 (3)

그늘에피인 백합꼿가티 한구석에서 빗나는 이에게로 긔자는눈을옴겻다

『누구십니까?』

『신은봉(申銀鳳)이애요』

날카러운듯한 얼골과는 딴판으로 그의음성은부드러웟다

『방진이다—재십니까? 또다른친척은?』

『비다—제서요 그리고이극단에 오라버니가와계시지요』

『네—그러서요 남매두분이 극계를위하야 일하시니 볼만흔일입니다 언제부터 극계에나서셧습니까? 처음에는 어느극단에요?』

『재작년이애요 열세살때 취성좌에 드러왓서요』

『그동긔는요?』

『그저극이조하서요』

『비—그러면 신은봉씨는 나오실때부터 그러한 런분이계신것입니다그려』

『무얼요』 하며 그는손으로 입을 막고서웃는다

그러나 눈만은그럿타는—빗을나타내이는듯

『어느학교를맛치셧습니까?』

『학교가무슨 학교애요』

『커는 어느학교를 맛치신것으로 드럿는데요』

『비—커— 평양녀자고보삼년까지 단녀보앗서요』

『그러면고향이 평양이십니다그려?』

『비—』

『좃습니다 당신가튼신이가 극단에 게시게된것은 고마운일입니다』

긔자는공연한 건방진 수작임을 깨닷고서 화제를돌렷다

—그의결혼 문제에 대하여서

『아즉결혼치안헛서요 애인이요? 호호호! 천만에 말슴을하시네 아즉련애고무애고 될수잇서요 그러나 결혼은 지내보아서 그쌔에하지요』

『그쌔라면은 막연합니다 그러나녀자라고 결혼을 꼭해야만한다는 법도업겟지요 사납을위하야 조흔 시절을 밧치는이도잇스니까요』

여긔서 긔자가또한 주저넘은말이 시작되랴하는고로 주춤하고서

『취미로는요』

『스포—스요』

『스포—스에도 어떠한것 입니까』

『테니스……애요 학교시대에……커……』

『비——학교시대에 선수엿습니다그려 훌륭하십니다 연극사누님들은 모두가스포—스를 조하하시는것이로군요 무대생활에는 몸이건전하서야지요』

이것은——긔자의거듭탈선!

◇

『방년이』 열아홉

『배우로는』……벨리떠브 로넬드콜맨

『최영은』 뱀프역—긔생역등

『리상적배우자는』……글쓰는사람

◇

긔자는 신은봉양을 보고 그의가슴속에 감초운 노래의한토막을 쓰려내엇다

나는 마음조흔 당신이라면 어머를가든지 따라가지요

당신은 나를死地에는 못보내십니다

그러나 보낸다하여도 따라가지요

그럿치만 당신이란 내마음에 그리는 환영입니다

당신은 목이세상에 재실것갓지는 안습니다요

그러나그러나 당신이란그것은 그리울것업시 그리는 내마음이지요

◇

이러면극사편들을 뭇마치며 디막에잇는 연극사단원의 건강을빕니다

사진은신은봉양

북극탐험 (三)

樂浪書

9 둘이안저서 불을쬐다가 10 밤이깁허서 잠을자는데 11 산쎄미가튼 白곰이나와 12 놀다쇄니 이지경이라

어우

조선

當選童謠

스무하로밤

尹福鎭

一

스무하로 이밤은 열곱타는밤
실뽑는 어머니가 열곱타는밤
×
버드나무 숲우에 둥근둥근 둥지달
쏘각달은 밝아오는데
×
어머니는 어듸가 두엇하시고
이밤이 집허가도 아니오실가

二

스무하로 이밤은 열곱타는밤
실뽑는 어머니가 열곱타는밤
×
자장자장 아가도 잠들지안코
눈또렷 공장집에 밤은깁는데
×
이달품싹 모자라 눈룸시우나
커닥이 넘어가도 아니오실가

—大邱南山村685—

기다리는긔차

李甸壽

자개정을 열순번 돌고돌아도
기다리는 긔차는 오지안코요
하로종일 집차만 왓다감니다
×
노랑버들 헤고잇서도
기다리는 그긔차는 오지안쿠요
×
나의눈엔 구슬눈이 매커집니다

(本社文藝部로住所를通知하시오)

시골

睦一信

고불고불 험한길을 돌고돌면은
산밋헨 올망졸망 초가집들이
서로서로 마주내고 잠을사지요
×
집집에서 울려는 방아의소리
엿집엔 탈그락탈각 배쌰는소리
×
꿕꿕한 시골산에 해가지면은
일하려간 일군들 나누간머슴
차래차래 집지고 도라오지요

(全南高興郡邑內 杏丁里)

장가간별님

韓環泉

은하수강 건너로 장가간별님
조선하눌 도라올줄 왜모르실가?
◇
늣게뜨는 반달배엔 아모도업서
동생별들 오늘밤도 울어샘내다

(住所를通知하시오)

한숨

李璟魯

등잔밋헤 어머님 한숨짐니다
누덕옷이 다커커님지못하면
알몸으로 방안에안자슬것을
어머님은 공연히 한숨짐니다
×
벽기띄든아버지 한숨짐니다
가를팔나라 잠자기조흘텐데요
아버지는 공연히 한숨짐니다

平北寧邊農業學校

謹賀新年

慶州

慶州 李淑雨 李琛雨 李仁雨

慶州沙正里 崔泳春

外東面渊安里 江陵旅館 鄭金禮

外東面活城里 李源夏

外東面渊安里 安秉澤

外東面方於里 李鍾浩 朴鳳錫

外東面所 面長 黃相洎

外東面大成里 權錫洙

慶州外東面 面協議員 金周漢

慶州入室驛前 南極斗

慶州入室驛前 酒造合資會社 盧允碩

慶州邑皇南里 片士方

慶州本町通 黃得祥

慶州邑 賞春館 主 李化善

慶州面長 金性權

慶州邑內 金在燮

慶州八幡町 金澤坤

慶州內南面德泉 盧載孝

校里 無名氏

內南公普校長 金守鉉

慶州八幡町 岡本自働車部

慶州仁濟局 李鍾翼

慶州 新羅亭

慶州衡平社支部 朴春吉

慶州 李起成

慶州皇南里 孫晉汝

慶州電氣株式會社

慶州郡江西面老堂里 金[illegible]燮

慶州郡江西面[illegible]里 面協議員 崔漢奎

慶州郡江西面山垈里 面協議員 李鎭奎

慶州郡江西面楊月里 鄭柄燦

慶州郡江西面楊月里 孫秀玉

慶州郡江西面楊月里 孫晉基

慶州郡江西面安康里 綢緞布木商 朴泰永

慶州郡江西面安康里 雜貨商 李能詳

慶州郡江西面安康里 新成旅館主 金斗天

慶州郡江西面安康里 慶主旅館主 梁秀玉

慶州郡江西面安康里 滿鮮穀物商 姜允壹

慶州郡江西面安康驛前 鶴山旅館主 李璉華

慶州郡江西面安康金融組合 理事 李圭學

慶州郡江西面安康金融組合 職員一同

慶州郡江西面 面長 崔文斗

慶州郡江西面所 鄭鎭俊

慶州郡江西面所 朴[illegible]

慶州郡江西面所 黃修光

玉山私立學校 職員一同

安康釀造株式會社 役員一同

慶州郡江東面良洞里 李基東

慶州郡江東面良洞里 李蓉源

慶州郡江東面良洞里 李錫海

慶州郡江東面良洞里 李源宅

慶州郡江東面良洞里 李源憲

慶州郡江東面仁洞里 李聲海

迎日郡杞溪面杞溪市場通 綢緞布木商 崔林集

杞溪金融組合 職員一同

迎日郡杞溪面 杞溪理髮館主 李昌祚

迎日郡杞溪面杞溪面所 李[illegible]

迎日郡杞溪面杞溪面所 [illegible]生

慶州郡江東面仁洞 李英雨

慶州郡江東面仁洞 孫晉瑩

慶州郡江西面安康里 日浦廣治

井邑

井邑郡新泰仁驛前 漢藥種商主 金元章

井邑郡新泰仁驛前 和信商店主 姜大郁

井邑郡新泰仁驛前 中央理髮館主 田大稷

井邑郡龍北面禾湖里 李璇琪

井邑郡梨坪面斗池里 殷銀基

井邑郡梨坪面馬項里 徐炳翊

井邑郡梨坪面市基里 山水洋襪工場 洪秊杓

井邑郡新泰仁驛前 泰昌商店主 徐承達

井邑郡新泰仁 金鍾乾

井邑郡淨土面大寺里 朴根洪

井邑郡新泰仁驛前 泰成堂診察所 醫生 盧成局

井邑郡新泰仁驛前 米穀雜貨商 主 李[illegible]

井邑郡新泰仁驛前 永昌理髮所 主 李喆

井邑郡新泰仁驛前 漢藥種商 主 [illegible]秉斗

井邑郡淨土面水金里 金[illegible]瑞

井邑郡甘谷面 職員一同

井邑郡龍北面禾湖里 [illegible]

井邑郡白山面 [illegible]徽相

金堤郡扶梁面新頭里 [illegible]

井邑郡新泰仁 李[illegible]星

井邑郡龍北面楊梯里 有志 姜河遠

井邑郡梨坪面八仙里 有志 李益三

井邑郡新泰仁 仁昌商店 主 金士益

井邑郡新泰仁驛前 各種木物製造販賣 木工場 主 金丙業

井邑郡梨坪面下松里 釀造會社 主 李官奉

井邑郡新泰仁 有志 金仁瑞

井邑郡新泰仁驛前 新泰仁寫眞館 主 金明乙

井邑郡龍北面禾湖里 公普校職員一同

井邑郡新泰仁驛前 泰仁醫院 禾湖分院 院長 尹善旭

井邑郡新泰仁 趙楨顯

井邑郡梨坪面下松里 金炳允

井邑郡甘谷面儒丁里 農友會

井邑郡新泰仁驛前 財團法人 富民協會 朝鮮出張所

金堤郡下鵝面良田里 李福述

金堤郡扶梁面月昇里 安永奎

井邑郡新泰仁驛前 肥料穀物 朴榮求

扶餘郡白山面龍溪里 日新亭 妓生 陳采雲 金紅桃 丁花仙

井邑郡新泰仁驛前 旅館主 南炳尤

井邑郡新泰仁 朴昌緒

井邑郡甘谷面大新里 金性奎

井邑郡新泰仁驛前 姜秉秀

井邑郡新泰仁驛前 海陸物產及果實商 張守萬

井邑郡龍北面禾湖里 東光精米所 主 金成培

井邑郡新泰仁驛前 友恭商會支店 主 李京範

井邑郡新泰仁驛前 湖南木工場 主 黃龍植

金堤郡扶梁面新豐里 鄭寅學

扶安郡白山面龍溪里 崔邦烈

井邑郡龍北面[illegible]里 張伯雲

井邑郡淨土面水金里 金道允

井邑郡新泰仁驛前 湖南旅館 主 宋秉浩

井邑郡淨土面梧琴里 有志紳士 殷斗滿

井邑郡龍江面禾湖里 熊本農場

井邑郡新泰仁驛前 漢城館 妓生 崔蘭玉 崔翡翠 鄭蓮花 金鳳鶴 李柳香 李秋月 金山玉 高美花 李菊花 石錦花

井邑郡新泰仁 有志紳士 李熙晃

金堤郡扶梁面月昇里 協議員 安永昇

井邑郡龍北面 面長 姜甲秀 職員一同

井邑郡新泰仁驛前 金銀細工 各種佩物 美術製造 眼鏡販賣 新盛金銀商會 主 朴弘燮

井邑郡新泰仁驛前 高麗養兎獎勵會 金堤出張所

順天

順天郡 大坪農場

順天郡 朴彰緒

順天郡 西面職員一同

順天郡 黃田面職員一同

順天郡 雙岩面職員一同

順天郡 上沙面職員一同

順天郡 道沙面職員一同

順天郡 別良面職員一同

順天郡 海龍面職員一同

順天郡黃田面 朴觀音

順天郡 金鍾弼

順天郡 湖南銀行支配人 金喜誠

順天郡月燈面 職員一同

順天郡順天面 職員一同

順天郡 金曜會

順天郡 湖南銀行 順天金融組合 昇州金融組合 土地會社 無盡會社

順天 李昊俊

順天 鄭權鉉

順天郡西面 許[illegible]

順天郡 西面協議員 趙琪熙

順天郡 西面協議員 李鍊宇

順天郡 西面協議員 黃琫周

順天郡 西面協議員 金基宗

順天郡 西面協議員 李洛鉉

順天郡西面鶴口里 南李燮

順天郡黃田公普校 白濱常賀

東山公普校職員一同

順天郡 住岩面協議員 趙基昊

順天郡 住岩面協議員 趙炳德

順天郡海龍面船月里 海龍精米所 裵錫棟

順天郡 海龍面協議員 裵萬栗

順天郡 海龍面協議員 任泰麟

順天郡海龍面星山里 裵永宇

順天郡西面東山里 酒類製造業 金日萬

順天郡樂安面新基里 金炳錫

順天郡廳及各團體

順天 禹沂桓

順天 金相洙

順天 金性太

順天大手町 大品商店 電話一六七

順天 金[illegible]

順天大手町 海產物 金鍾林商店

順天 土[illegible]由之[illegible]

順天本町 金蓮熙

順天南門通 朝日旅館

順天大平町 崔亮燮

順天 藤原藤太郎

順天南門通 [illegible]商店

順天 柳在熙

順天 禹珪桓

順天 [illegible]料理店 電話二二一

安東

安東邑內 安東酒造株式會社 慶安釀造株式會社 安東麯子組合 慶尙合同銀行安東支店 戊辰會

安東邑旭町 三星洋靴店 主 權泳鎰

豊北面新陽洞 趙鼎植

安東邑法尙洞 永生醫院 院長 [illegible]永錫 書記 [illegible]

安東邑西部洞 建具製作所 主 金寬俊

安東議察署 職員一同

安東邑南門通 料理業 常春園

安東郡臨東面水谷洞 柳東[illegible]

安東郡西後面 廣興寺

安東郡南城面九尾洞 許鳳九

安東邑南門通 綢緞布木商 金麗鎭商店 店員 金慶鎬 金[illegible]鎬

安東郡豐西面[illegible]洞 金洙東

安東邑東部洞 各種菓子 乘食料品 大邱商店 主 李錫淵

安東邑西部洞 金丙柱

安東邑東部洞 綢緞布木商 金在麟 [illegible]行

安東邑西部洞 權龍壽

安東邑法尙洞 權五鍾

安東邑南門通 鍮器製造販賣 金正漢

安東邑法尙洞一四三ノ二 從五位勳六等 辯護士 金[illegible] 電話三六番

安東邑西部洞 穀物貿易精米 東信商店 主 金禹鎬

安東邑[illegible]町 金銀細工各種 油粕製造及 原料都散賣 大日商店

安東邑西部洞 金銀美術細工業主 李順瑞

安東邑內北門通 綢緞布木及精米 安東精米所 主 李德用

安東邑法尙洞 權五善

安東邑東部洞 材木商 千寬根

安東邑西部洞 綢緞布木 徐元達商店 主 徐元達

安東邑東部洞 醫生 好生醫院 裵[illegible]永

安東邑南門通 綢緞布木其他雜貨 金斗漢商店 主 金斗範

安東邑東部洞 大信洋服店 主 [illegible]雲燮

安東邑西部洞 姜熙伯

安東郡豐北面五美洞 林璣洙